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보시였다



1 번 예 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이 류레없는 악랄한 대조선《제제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우리의 눈앞에서 극악무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있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정치경제적압박과 군사적위협을 극대화하여 우리를 조금이라도 흔들어버리는 어리석은 통상속의 허위적거리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며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침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도발광풍을 우리 공화국정부와 군대와

인민은 더이상 눈뜨고 지켜만 보고있지 않을것이라고, 우리는 적들이 잘못된 시기에 잘못 내린 저들의 판단과 대책없는 망동질을 놓고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것이며 그물 위하여 우리 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취해나갈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배당이 극도의 복침야망에 들떠 존엄을 우리 국가를 향해 또 다른 군사적망동질이나 서투른 자작극을 벌려놓는다면 그에겐 피피반동정권이 영원히 생존할수 없게 물리적으로 얻어맞고 사멸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엄중히 경고하였지만 박근혜

《정권》이 임기 마지막날까지 불운이 드리운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피해가려면 자중, 자숙하는 김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이 눈앞에서 그 어떤 위협천만한 불장난질을 해댄다 해도 결코 눈섭 하나 까딱할우리가 아니지만 신성한 우리 조국의 일목일초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라격수단들에 즉시적인 공격명령을 내릴것이며 박근혜《정권》의 정수리와 괴뢰군부광페루리들에게 생존이 불가능한 실명적인 불세례를 들의울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민유직한 핵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장병들이 이 세상 그 어떤 침략과 전쟁으로부리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무분별한 전쟁광신자들에게 주제의 군사적대용방식이 어떤것인가를 특별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박근혜역적배당이 독침광기를 부리다가 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기지를 폭격으로 삼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체 장병들은 적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을 떠들며 사소한 군사적망동이래도 부린다면 하늘끝까지 치달고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를 총폭발시켜 영웅조선의 본태를 다시 한번 가슴후련하게 보여주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을 성취할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지도반

김정은령도자께서 핵선제라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선언하시였다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을 9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의 전문가들이 나라의 핵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각이한 전술 및 전략탄도로켓제작에 커다란 주의를 불리시고 탄도로켓전투부대에 장착할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구조작업원리를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가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할 때에는

주저없이 핵선제라격을 가할것을 선언하시였다. 중국의 신화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핵시설들의 정상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하며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이미 실전준비한 핵타격수단들을 부단히 경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로이 터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핵부문의 관계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다 위협하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해 강조하시

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열혈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제작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핵선제라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국이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할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범타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토펜스크, 인데르화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카야 가제타》, 《모스콥스키 공소블레트》, 《레도모스키》, 《브즈글라드》, 《아르구멘타 이 락미》, 연태체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텔트르TV방송, 인터넷통

조선은 자주권침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여러 나라 인 사들 강조

미제와 남조선괴뢰배당의 팽창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벨라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조 성원 밀렌 일리에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여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죄운 나라이다. 남조선에는 방대한 미군부력이 주둔하고있으며 그들이 임의의 시각에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조선은 이라크와 리비아사태를 잊지 않고있다.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언구 이따리아위원회 위원장 미러암 벨레그리니 베리는 조선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받고있다. 조선이 미국의 끊임없는 세 전쟁도발책동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강화발전시킨것은 웅대한 자위적조치였다. 조선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 적이 없으며 자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벨라리아의 동아시아문제전문가 나코 스페와노브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장장비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해마다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데 이것은 조선을 침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적들이 음모하기만 해도 주시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자기의 자주권을

나아가고있다. 이에 불만과 공포에 질린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아보고자 갖은 말쑤를 다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공공연히 묵인하고 조선의 핵무기보유만을 문제시하며 방해하는 미국의 전쟁과 불공평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나라의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조선의 명목에서 불한포기라도 다친다면 저들의 멸망만을 가져올것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진보를 이룩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